

<87년 개인전 서문>

모더니즘의 종말과 상상의 자유

1983년 제3회전의 성공에 이은 오랜 연구생활 끝에 열리는 이번 작품전은 여러 모로 성숙한 금속공예가 유리지의 창작품들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인체의 구조와 성장의 형태에 대한 관심에서 기능성을 주로 한 기계적 구조와 형태에 대한 탐구를 거쳐 자연계의 생태학적 질서와 형태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뚜렷이 나타내 보인 주제의식의 진전은 가장 두드러진 성숙이다.

새로워진 자연에 대한 사랑과 생명력의 근원에 대한 탐구는 작가를 언제나 그리운 고향의 산천에로 인도하고, 자연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 온 역사의 뿌리와 만나게 한다. 그는 의식의 창을 통해 고향을 하나의 그리움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뿌리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역사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는다.

작가는 이제 인간을 인체로서 분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의 거리를 보여주며, 자연을 부분의 종합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살아 숨쉬는 생태학적 질서의 순환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작가의식의 확대된 차원을 보여준다. 전체를 그 자체로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거리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형태면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자유로운 착상과 자유로운 변형을 나타내 보인다. 하나하나의 작품마다 상상의 자유가 잉태시킨 “최소의 기능과 최대의 형태”라는 성숙된 조형성을 입증한다. 그가 탄생시킨 형태는 이미 단순화의 추상적 형태도 아니며, 분석과 재구성이 가져온 기능적 형태도 아니다. 그는 추상주의와 기능주의가 지배하던 모더니즘의 조형철학을 극복한 새로운 세대의 조형철학-자연과 인간과 사회와 역사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개인의 개성적 접근을 존중하려는 새로운 조형의식이 잉태시킨 상상의 자유를 금속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런 주제의식의 성숙은 자연스럽게 재료와 기법에서 이전에 다루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선보인다. 재료는 정은·동·황동·백동·순금·18K금·월석·아크릴·합성수지 등 외에 철·알루미늄·사파이어·대리석·마천석·천안석 그리고 자개에 이르는 확대를 보인다. 기법은 성형·용접·둔을·무늬·고리·전사·상감 등 외에 금부·조금·포목상감·도금의 확대된 기술을 보인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에 나타난 재료선택과 기법확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뚜렷한 역사의식의 발로이다. 특히 금속류 재료와 자연석재의 결합에서 재료선택의 새로움을 보인 작품들은 작가의 소재의식이 찬란한 금속예술의 전통을 마련한 서라벌의 장인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이에 못지않게 상감기법의 다양성과 회화적 기법의 자유로운 표현을 시도한 기법의 실험정신은 고려와 조선의 조형기법에 이어지는 장인정신의 발로이다. 산업화·서구화의 물결 속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의 가능성만을 믿는 개인의 개성적 창작의 세계. 금속의 예술가 유리지는 이제 모더니즘에 종말을 고하고,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에 접어들었다.

유근준(劉權俊), 서울대 미대 교수